

15분 모의고사 9회 정답 및 해설

(1106 모의평가)

문법

1. ③ 2. ②

1. 어휘·어법 (어휘 사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의 문장에서 ‘불릴’은 배가 고플 아이들의 배를 채우게 한다는 의미이므로 ‘먹은 것이 많아 속이 팍 찬 느낌이 든다.’(부르다2)의 사동형이 적절하게 사용된 예이다.

[오답피하기] ① ㉡에서 ‘불렀다’는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인다.’(부르다1의 ㉡)의 피동형이다. ② ㉢에서 ‘불러’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부르다1의 ㉠)의 피동형이다. ④ ㉣에서 ‘불리는’은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분다2)의 사동형이다. ⑤ ㉤에서 ‘불려야’는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분다1)의 사동형이다.

2. 어휘·어법 (정보 출처 표현의 용법 파악)

정답해설 : 어미 ‘-을래’에는 정보의 출처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정보가 담겨 있다.

[오답피하기] ① 어미 ‘-대’에서 간접적으로 ‘전해 들음’의 정보임을 알 수 있다. ③ 어미 ‘-네’에서 화자가 ‘직접 경험’한 정보임을 알 수 있다. ④ 어미 ‘-을걸’에서 ‘추측’하고 있는 정보임을 알 수 있다. ⑤ 어미 ‘-겠-’에서 ‘추측’하고 있는 정보임을 알 수 있다.

독서

3.① 4.③ 5.③ 6.⑤

[3-7] 예술, ‘회화적 재현의 본성에 대한 통찰’

지문해설 : 이 글은 회화적 재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미술사의 흐름과 철학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있다. 먼저 미술사의 흐름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로부터 사실성을 강조한 인상주의자들, 그리고 본질이나 존재를 드러내고자 했던 세잔, 그리고 이를 계승한 입체주의까지 실제의 재현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비교 대조하며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어서 철학적 차원에서 고흐와 칸딘스키의 이론에 주목하여 회화적 재현의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피카소가 던진 한 마디에 회화적 본성에 대한 통찰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주제] 미술사와 철학적 차원에서의 회화적 재현에 대한 고찰

3. 추론적 사고(인물의 의도 파악)

정답해설 : 피카소가 그린 스타인의 초상화는 그녀의 모습을 닮지 않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피카소는 초상화가 앞으로 그녀를 닮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 이 말에 담겨 있는 피

카소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피카소가 회화적 재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4문단에서 입체주의는 존재, 본질을 드러내고자 했던 세잔의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한 발 더 나아갔다고 했다. 입체주의는 대상의 실재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을 한 화면에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4문단에서 스타인의 초상화가 본격적인 입체주의 그림은 아니지만 세잔에서 입체주의로 이어지는 실제의 재현이라는 관심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하고 있다. 즉 어느 한순간의 외양이 아니라 본질을 재현하고자 하는 의식이 스타인의 초상화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④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려 했던 사람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다.

4. 추론적 사고(새로운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3문단을 보면, 세잔은 본질이나 실재를 담아내기 위해 대상을 실물보다 훨씬 단순하게 그렸으며 윤곽선을 그리고,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상주의자들은 사실성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며 모든 대상을 빛이 반사되는 물체로 간주하고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여기서 (가)에 원근법이 사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윤곽선이 뚜렷한 그림은 (나)의 세잔의 그림이다. ② 대상이 빛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은 (가)이다. ④ 사물의 고유색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의 모네와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이다. (다)의 피카소는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의 모습을 한 화면에 담아냈다. ⑤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 그림을 목표로 한 사람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며, 사실성을 의식적으로 추구한 인상주의자들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5. 비판적 사고(관점의 적용 및 평가)

정답해설 : 고흐와 칸딘스키의 이론이 가지는 핵심은 ‘순수한 눈’은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성도 없고, 사실적인 그림이란 한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그림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지각은 관습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인상주의자들은 의식적으로 사실성을 추구했으며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회화의 목표로 삼았다. 또한 이들은 빛에 의해 같은 사물이라도 시시각각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므로 고흐와 칸딘스키는 인상주의자들이 아무리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그리려 노력해도 그들은 객관적인 사실성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고흐와 칸딘스키는 ‘순수한 눈’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② 고흐와 칸딘스키는 객관적인 사실성을 부정한다. ④ 고흐와 칸딘스키는 ‘숨어 있는 실재’를 언급하지 않았다. ⑤ 고흐와 칸딘스키에 따르면, 사실적인 그림이란 익

속한 그림이며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6. 비판적 사고(근거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은 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을 일컫는다. 이 두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지각은 관습과 문화, 배경 지식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작품의 지각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사전 지식이 나무를 그린 소묘 속 불분명한 연필 자국을 나무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소 때 그림에 있는 연필 자국을 소로 보게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하다.

[정답] ㉠

[오답피하기] ㉡ 배경 지식의 영향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 관습과 문화의 차이를 강조하지 않기에 적절하지 않다. ㉣ 콰브리치와 굿맨이 말한 사실적인 그림이란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것이라 했다. ㉤ 선천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

문 학

7.㉡ 8.㉠ 9.㉡ 10.㉣

[7-10] 고전소설 - 작가 미상, '낙성비룡'

작품해설 : 어려서 부모가 죽고 고아로 자란 주인공 이경모가 구원자를 만나고 다시 위기를 겪고 이를 극복하여 승리자가 되는 파란만장한 영웅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줄거리나 주제, 표현 형식에 있어 다른 영웅 소설과 비교할 때 독창적인 점은 없지만, 섬세한 인물 성격 묘사와 순 우리말 표현이 특징적이다. 특히 주인공이 '잠꾸러기'에다 '떡보'로 나타난 독특한 면모를 보이는데, 이는 '소대성전'과 일치하는 부분이며 주인공의 능력은 하늘이 내려준 천부적 재능 이라기보다는 인물의 뛰어난 성품과 스스로의 학업에의 정진 등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는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 떡보에 잠꾸러기인 이경모의 고난 극복과 승리

7.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장면은 태수인 설인수와 원수인 경자(경모)이 만나 회포를 푸는 장면이다. 계급으로는 태수가 원수를 모시는 형편이지만, 그들은 계급 이전에 동서 지간이다. 둘 사이에 이러한 인연이 밝혀지면서 극존칭을 쓰던 설인수의 말이 편해지고 둘은 사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서로의 안부와 처의 안부를 물으며 흉도 보고, 위협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인물들이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오답피하기] ㉠ 이원수의 앞날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한 암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 주로 대화를 통해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인물들이 조롱하듯 서로 주고받는 말이 일부 있

으나 이는 갈등이 아니라 둘이 허물없는 사이임을 보여준다.

8. 사실적 사고(서사 구조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마지막 장면에서 설 태수는 돌아와서 부인에게 이원수의 일을 전한 후 돌아가신 장인의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에 감복했다고 했다. 이로 보아 장인은 이원수가 크게 될 인물임을 알아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후반부에서 태수는 원수에게 '그 술하게 자던 잠과 둔하게 많이 먹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 하오.'라 했고, 이에 대해 원수는 '급제한 후에는 더 많이 먹히더이다.'라 했다. 이로 보아 이원수가 한때 잠을 많이 잤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설 태수와 이원수의 대화를 통해 이원수는 부인을 두고 집을 나온 지 11년이 되었다고 했을 뿐, 왜 집을 나오게 되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이원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소 먹이던 목동이었다가 원수가 되었는지의 과정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다.(㉣).

9. 사실적 사고(말하기에 나타난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설 태수는 원수가 약한 부인을 버리고 집을 간간 후 11년 동안 편지 한 번 없이 보낸 행동에 대해 어둡고 무심하다며 질타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인품을 칭송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원수의 넓은 덕을 추앙하는 것은 타인의 평가일 뿐이다.

[오답피하기] ㉠, ㉡ 나는 비록 벼슬은 낮지만 처자를 편히 거느리니 가히 형보다 낫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 약한 처제를 홀로 남겨두고 소식조차 없었던 원수의 행동을 탓하고 있는 말에서 알 수 있다.

10. 어휘·어법(한자성어에의 적용)

정답해설 : '환골탈태(換骨奪胎)'란 '뼈대를 바꾸어 끼고 태를 바꾸어 쓴다'는 뜻으로, '고인의 시문의 형식을 바꾸어서 그 짜임새와 수법이 먼저 것보다 잘되게 함을 이르거나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판사람처럼 됨'을 이른다. 원수는 11년 전 소 먹이던 목동이었으나, 현재는 한 나라의 원수가 되어 있다.

[오답피하기] ㉠ '수구초심(首丘初心)'은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로 향한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컫는 말'이다. 경모는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수도로 가는 길에 부모 묘소가 있는 고향에 들르겠다고 했다. ㉡ '오월동주(吳越同舟)'는 '사이가 나쁜 사람끼리 같은 장소나 처지에 함께 놓임. 또는 서로 반목하면서도 공통의 곤란 이해에 대하여 협력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 '온고지신(溫故知新)'은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을 이른다.